

인천문화재단 “올 13억여원 문화예술사업 지원”

2009-02-10 11:46:26

【인천=조석장기자】 인천문화재단이 ‘2009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인천문화재단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전문예술인 및 단체들의 창작에 대한 열정과 시민, 단체들의 문화활동 욕구는 수그러들지 않았으며 올해 일반공모 지원사업은 작년 517건 접수에서 521건으로,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은 작년 78건에서 84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일반공모 지원사업의 경우 총 521개 신청건 중 193건(37.0%), 총 8억 8000만원이 지원 결정되었고,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총 84개 신청 건 중 24건(28.5%), 총 4억 1700만원이 지원 결정됐다.

인천문화재단은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다원예술 등 5개 영역으로 구분되는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의 성과측정 및 효율성 확보의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후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원결정액의 70%를 사전에 지급하고, 사업 수행 후 현장 평가 결과에 따라 나머지 3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일반공모지원사업의 예술표현활동 분야와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지역의 중대형 무대공연작품들을 집중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후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단체나 개인은 사업 수행 1개월 전까지 교부 신청을 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www.if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seokjang@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기사 맨위로](#)

Copyright © 2008 파이낸셜뉴스(주) All Rights Reserved.

[☒ 창닫기](#)